

3 - AUG 27 1962
Copy

청년생활

1962.4



공청 회의를 지도하시는 김 일성 원수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962. 4 (152)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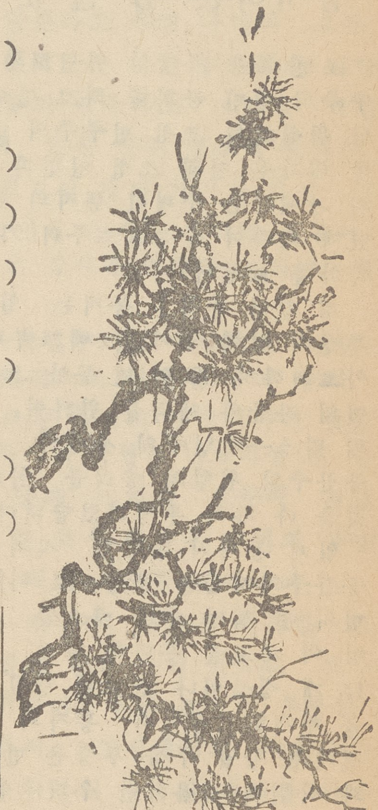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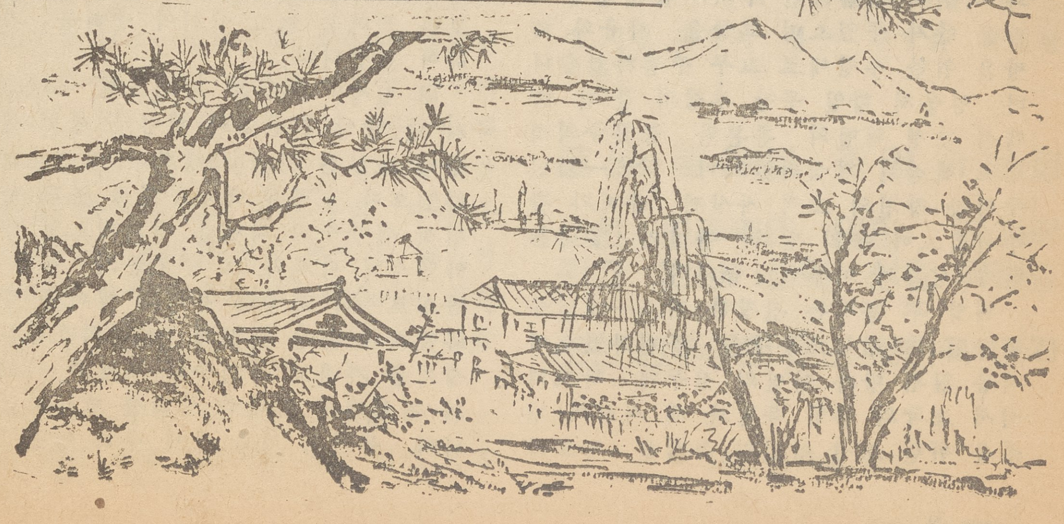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 (2—38—58, 2—83—85)

1962년 4월 15일 인쇄 1962년 4월 20일 발행

《값 30 전》 ㄱ—230137





축 하 문

경애하는 김 일성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인 동지의 탄생 50 주년에 제하여 충심으로부터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 일성 동지! 동지는 일찌기 혁명 투쟁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 여 년 동안 오직 조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첫 혁명 무장 대오를 조직하였으며 이 대오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면서 15 개 성상이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혁명의 튼튼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가 갖추어졌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동지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 로동당을 창건하였으며 시종 일관 당과 인민의 선두에 확고히 서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였으며 또 령도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의 현실에 능숙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혁명 발전의 매 계단에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인민 대중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였습니다. 동지는 항상 전 당과 전체 인민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제때에 전진 도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현명한 방도를 제시하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완강한 투지와 비상한 정열과 무비의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이 채택한 로선의 관철에로 동원하였으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선 인민은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온갖 파란 곡절을 다 겪었으나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세련된, 확고 부동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로 하여 언제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투쟁에 떨쳐 일어 났으며 모든 풍파를 뚫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렬의 강철 같은 통일을 보장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자기 주위에 굳게 단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전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기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착취와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날로 륭성하는 조국의 품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를 받들고 남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령도하는 조선 로동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세련된 전투 대오로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실지 투쟁을 통하여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락후하던 우리 사회를 변혁하며 우리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왔으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승리와 성과들은 모두가 다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습니다. 오늘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번영하는 자기의 조국을 자랑하며 자기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즐기면서 항상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세운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공훈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영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되고 인민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우리 당의 령도가 있으며 절세의 애국자이며 불굴의 혁명 투사이며 탁월한 령도자인 김 일성 동지가 당과 인민의 선두에 확고히 서 있는 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백전 백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의 만수 무강을 축원합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1962년 4월 15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붉은 전사가 되자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무한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해방 전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시달렸고 식민지 노예의 설음과 고통을 겪어 온 조선 청년들이 오늘은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자기의 재능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고 있다. 오늘 청년들은 착취와 압박, 실업과 빈궁을 알지 못하며 온갖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영광—그 모든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이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거시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벌써 1933년에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은 태산도 허물어 낼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힘을 더 키우고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 변혁의 거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 사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30년 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직접 조선 청년 운동을 조직 지도하시였다. 바로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공청의 고귀한 투쟁 업적과 풍부한 사업 경험, 해방 후 민주 청년 동맹의 창건과 그의 16 년 간의 투쟁 업적들은 모두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먼 장래를 내다 보시면서 혁명의 후비 력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청 조직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을 직접 조직 지도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항일 빨찌산 투쟁의 매 발전 단계에서 청년 사업의 기본 임무와 활동 방침을 명시하여 주시였을 뿐만 아니라 무장 투쟁과 당 사업을 지도하는 다망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서도 공청 위원회들에까지 몸소 찾아 가서 공청 사업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개별적 공청 일'군들과 공청원들과도 담화하시고 그들의 생활과 사업 방법, 사업 작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고 육친적으로 보살펴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 밑에 공청 조직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은 광범한 지역들에서 근로 청년들 속에 깊이 뿌리 박고 혁명적 청년들을 광범히 묶어 세웠으며 그들을 열렬한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열렬한 혁명 전사로 교양 육성된 공청원들과 공청 일'군들은 빨찌산 대오에서, 지하에서, 원쑤들의 감옥에서 공산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항상 용감했으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조국의 광복과 공산주의 위업에 바쳐 백절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에도 청년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민주 청년 동맹을 창건하고 혁명의 매 시기에 그가 수행해야 할 혁명 과업과 청년 교양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민청 조직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였으며 민청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 사업에 대한 력사적인 연설들에서 민청내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의 수준을 제고하고 동맹 내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특히 민청 단체들이 대중적 단체로서의 조직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각계 각층 청년들을 민청에 광범히 인입하여 교양할 데 대한 문제, 또한 민청이 당의 후비대 답게 청년들 속에서 당원의 후비를 많이 양성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민청은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청 중앙 위원회는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성이 강한 좋은 당원이 될 수 있는 후비를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이 민청 단체의 기본 임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혁명의 매 시기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현 시기 민청 단체들의 중심 과업은 전체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선진 과학 지식으로 무장시키고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며 체력을 부단히 단련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는 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서 김 일성 동지는 주체를 확립하고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있어서 언제나 그것을 조선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시였다.

또한 민청 단체들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며 민청 단체들과 민청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여러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같이 민청을 창건하고 일상적인 지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대들을 참된 미래의 역'군으로 교양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생활과 학습, 그들의 발전에 대하여 항상 육친적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교양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나라의 귀중하고 값 있는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돌려 주시였다.

이미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청년들이 일제의 학정 밑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노예 로동과 노예 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 복무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군사 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면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시였으며 유격 근거지에 아동단 학교들을 설치하고 그들의 학습을 직접 조직 지도하시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민주 학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되였다.

당과 수령은 어려운 조국 해방 전쟁의 나날에도 청소년들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 주시였으며 푼전을 아껴 가며 전후 복구 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제일 먼저 건설해 준 것도 학교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수업료가 폐지되고 철따라 학생들에게 교복까지 내주고 있으며 동방에서 제일 먼저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머지 않아 9년제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수많은 근로 청년들이 공장과 광산, 기업소에 설치된 공장 대학에서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배우고 있다. 오늘 공장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배움터로, 인재 양성의 기지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청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반기를 틀어쥔 로동 청년도, 협동'벌의 농민 청년도 누구나 할 것없이 모두가 다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고 있다.

실로 수상 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육친적 배려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다. 수상 동지는 청년들의 문화 생활과 그들의 건강과 휴식에 이르기까지 깊은 배려를 돌리시고 그의 온갖 조건을 지어 주고 있으며 심지어 개개의 청년

들의 운명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 계신다. 공장과 농촌에 가시면 친자식을 만난 것처럼 청년들과 허물 없이 담화하시고 그들의 생산 활동과 학습, 개인 생활과 식사 조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신다. 혁명가와 애국 렬사들의 유자녀들, 그리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제대 군인들과 영예군인들,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 대한 수상 동지의 사랑과 배려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다. 또한 청년 인테리들, 과학자와 기술자, 청년 작가와 예술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온갖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시며 또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굳게 믿어 주시고 넓은 품에 포옹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모두다 화목하게 단합되여 있으며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누리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북반부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공화국 남반부 청년들을 하루속히 구원할 데 대한 생각에서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으며 재일 조선 청년들의 교육 교양에 대하여서도 깊은 배려를 돌리시고 수차에 걸쳐 막대한 교육비를 보내 주게 하셨다.

김 일성 동지의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과 현명한 지도 하에서 조선 청년과 민청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후비대로 자랐다.

오늘 민주 청년 동맹은 근로 청년들을 핵심으로 252만 여 명의 각계 각층 청년들을 결속한 강력한 대중적 단체로 발전하였으며 전체 민청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당이 주는 임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어 그를 끝까지 관철하며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당을 튼튼히 보위하는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민청 단체들은 전투와 로동에서 단련된 일'군들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히 꾸려졌으며 열성자 대렬이 부단히 확대되고 공산주의 교양자들이 수 많이 배출됨으로써 각계 각층 청년들을 성과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있다.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민청 단체들의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사업 방법이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전체 청년들 속에서는 항일 빨찌산의 고매한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 빛나게 구현되고 세인을 경탄케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에 날마다 붉게 꽃피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민청 단체들은 당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지체 없이 동원되여 당이 위임하는 어떠한 어려운 혁명 임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여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새 생활의 건설자로 자라났고 또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으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어 그를 끝까지 관철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나라 청년들은 1,211 고지를 비롯한 가렬한 전선에서 적들에게 《한 치의 땅도 내주지 말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명령을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영예롭게 실천하였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19 세의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한 조선 청년들의 가슴 속에 그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겨 있는 리 수복 영웅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웅들과 수훈자들이 배출되였다.

청년들은 원쑤들의 폭탄이 비'발치는 후방에서도 기대와 보탑을 잡고 전시 생산을 보장했으며 우리 인민 군대가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의 지도 밑에 지하 투쟁과 빨찌산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 경제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들인 탄광, 광산, 수산, 림업 부문 등에 앞을 다투어 진출하여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생활을 통하여 수상 동지가 가리키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행복이 약속되여 있으며 수령이 가리키는 대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은 바다보다 깊고 산 보다도 높은 김 일성 동지의 무한한 사랑과 육친적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철저히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준비함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붉은 전사로, 불요 불굴의 혁명 전사로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 일성 동지의 사상 의지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의 정책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새로운 기여를 한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현지 교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이며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그의 심오한 내용과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를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청년들이 언제 어데서나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사상 의지로 사고하고 생활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와 조국의 장래 운명에 대한 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믿음직하게 준비할 것을 간곡히 교시하였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열렬한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학습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 뿌리를 파악하며 혁명 선배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과 애국적 헌신성, 그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우고 그것을 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계급적 의식을 높이고 그 어떤 계급적 원쑤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피로써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모두다 선진 과학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소유하고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학습 열의를 더욱 높이며 모두가 항상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시간을 아끼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하다.

전체 청년들은 또한 온갖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들과 낡은 부르죠아적 생활 인습의 잔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항상 긴장되여 검박하게 생활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생활이 행복하고 유족해질수록 혁명 선배들의 고난에 가득찼던 생활과 간고한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언제 어데서나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배격하고 자기의 손, 자기의 힘으로 더 많이 더 잘 건설하며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더 많게하고 더 잘 리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적극 발양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또한 체육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단히 단련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로력자가 되며 당과 수령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조국 보위의 초소에 나설 수 있게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전체 청년들은 혁명적 락관주의와 창조적 정신으로 충만되고 항상 생기 발랄하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새 것을 창조하면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을 오늘까지 승리에로 인도한 김 일성 동지는 천리 앞을 내다 보시면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 혁명 과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하다 할지라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 덩어리로 튼튼히 뭉쳐 달려 나가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앞길은 그 어떠한 힘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수령이 가리키는 휘황한 앞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서광

제2부 중에서

조선 인민이 낳은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이며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우인 박 달 동지의 심장의 기록 장편 소설 "서광" 제 2 부가 민청 출판사에서 발행된다. 아래에 그 중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부)

박 달

12월 25일이 왔다. 성호는 도강증을 다시내 가지고 콩'자루 여섯 개를 바로 묶어 메고 새벽 같이 집을 나섰다. 가면 언제쯤 돌아 오느냐고 앞집이들이 물었다.

《콩말이나 살라면 며칠 걸릴 것입니다.》

성호는 큰 저고리에 큰 버선을 신고 초신에 신들메까지 해 간편한 몸 차림으로 흔연히 대답을 하며 성큼성큼 거리를 지나갔다. 성호는 먼저 오풍동에 들려 김 일성 동지를 만날 문제로 시욱이와 토의를 한 후 일부러 혜산을 돌아 목교로 장백을 건너 갔다. 성호가 리 동순 집까지 갔을 때는 이미 겨울해가 지고 있었다.

권 백 동지는 있지 않았고 오늘 밤 길 안내는 자기가 하기로 되였다고 동순이가 말했다. 성호는 김 일성 동지가 어떤 데에 계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며 초조히 떠날 시간만 기다리였다. 그런데 동순은 밤이 점점 깊어 가는데도 떠날 차비를 하지 않는다. 성호가 슬며시 물었다.

《김 일성 동지 계신 곳이 가까운가요?》

《가깝지도 않지요. 서너 너덧 시간 잘 걸려야합니다.》

성호는 구태여 더 묻지 않았다. 동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동순은 이미 김 일성 동지를 여러번 뵈러 갔다 온 것 같다. 그렇지만 성호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더욱 조바심이 인다.

밤 열시가 되자 동순은 급자기 서두르더니 떠나자고 했다. 성호는 말 없이 동순의 뒤에 따라 섰다. 큰 길까지 한 5리 장간은 길 아닌 수림 속을 헤치고 걷는데 눈이 허리까지 빠져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눈에 빠지는 것쯤 아무 것도 아니였다. 이즈음은 밤만 되면 도처로 싸다니는 일만 군경이 널려 있는데 이렇게 밤에 가다가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공산군으로 몰아 총살을 당하는 판이였다. 두 사람은 눈 보다도 어디서 일만 군경이 불쑥 나타나지나 않나 거기에만 온 신경이 쏠리여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무사히 큰 길까지 빠져 나와 거기서부터는 큰 길로 내내 걸었다. 한 25리'길을 걷는동안 다행히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동순은 거기서 다시 산'길로 들어 서야 하겠는데 낮에 눈보라가 일어 길이 다 덮여 버린 관계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동순은 한참 이리 저리 헤매였다. 이때

《누구야?》

하고 중국말로 지르는 소리가 저 쪽에서 들려 왔다. 위만군 보초놈이 틀림 없었다. 성호는 이런 일에 훈련이 되지 않아 대번 등'골수가 섬찍했다.

《아차 잘못 됐군. 저 수림 속으로 들어 가 눈 속에 배깁시다.》

동순이가 귀'속말로 가만히 그러면서도 성급하게 말한다. 성호는 동순이 하는 대로 민첩하게 얼른 수림 속으로 들어 서며 눈 속에 묻히였다. 밤이라 눈 속에 파묻히면 잘 모른다. 두 사람은 눈 속에 묻힌 채 밑으로 눈을 파며 앞으로 전진했다. 그래야 놈들이 파묻혔던 지점을 알고 오더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다시 방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치라도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것, 이것은 결사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한참 눈 속으로 가다가 눈 우로 머리를 내밀고 보니 그 놈은 어디로 갔는 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겨우 눈 속에서 일어 섰다. 그래 나무를 의지 하면서 얼마간 살금살금 걷다가 마침 오솔'길을 찾았다.

《바로 이 길입니다.》

동순이가 반가와 한 마디 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비탈을 내려 지양개 물'골을 지나 삼개'골로 한 10리 올라 갔다. 이 때 마침 맞은 편 산 밑에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며 두 사람이 이 쪽으로 걸어 오는데 등에 총창이 번쩍이는 것을 보니 군대 같았다.

두 무장 대원이 앞으로 다가 서며 《어디로 가오?》 하고 묻다가 그 중 한 대원이 《아! 동순 동무 아니요?》 하고 반가와 한다. 그 대원은 바로 동순의 부락에서 유격대에 입대한 동무였다. 《부대가 어디 있소?》 동순이가 물었다. 《요 우 언덕에 있소,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공작 중이요. 올라가며 소리를 치면 우리 동무들이 나올 게요》

두 대원과 갈라진 두 사람은 마음을 푹 놓으면서 다시 얼마 간 걸었다. 그러나 얼마를 걸어도 언덕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들 있소—》

동순이가 높은 소리로 웨쳤다. 바로 옆 언덕 우에서 사람이 내려 왔다. 두 사람은 이내 안내되였다.

언덕 우에는 널로 지은 집이 있는데 길이는 한 10 메터나 되고 넓이는 5 메터쯤 되여 보였다. 집 내부는 량 쪽으로 온돌이 되여 있고 복판은 통로로 되여 있었다. 들어 가는 어구에 큰 칸과 사이를 막은 작은 칸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큰 가마가 걸려 있었다. 량쪽 온돌에 불을 때는 부엌이 분명했다. 매 칸에는 각각 나무를 때는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들에는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려 방안은 아주 후끈후끈 더웠다.

한 대원에게 안내되여 조심조심 주위를 눈익혀 살피면서 방안에 들어 선 성호는 난로를 끼고 앉아 있는 여러 대원들을 둘러 보았다. 그러자 난로 옆에 앉았던 젊은 대원 한 사람이 들어 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며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였다.

성호는 보통 대원은 아니고 지휘관인듯한 젊은 분의 환영을 받으면서 난로 옆에 앉았다. 이 때는 벌써 밤 3시가 넘는 때였다.

성호는 이 젊은 지휘관은 아마 야간 경비를 책임진 동무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젊은 지휘관이 다시 말을 하였다. 《피곤하실터인데 어서 누워 쉬십시다.》 약간 쉰듯하면서도 우렁우렁한 부드럽고도 위엄 있는 목소리였다. 성호는 새삼스럽게 이 젊은 지휘관에게서 름름한 위풍을 느끼였다. 성호는 속으로 유격대 지휘관들은 모두 이렇게 위엄이 있는게로구나 하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유격대의 엄한 규률이 감촉되는 성호는 두말 없이 이 젊은 지휘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대원이 자리를 펴주었다. 이불은 모포였다. 동순이도 두 말 없이 자리에 누웠다.

성호는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그리던 인민 혁명군 병영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 여러가지 생각이 구름처럼 떠오른다. 성호의 생각은 어느 사이 다시 김 일성 장군께로 달렸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일가, 년령은 얼마나 되시였을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젊으신 분이라는데, 복장은 어떻게 입고 계실가, 그분이 거처하는 숙소는 어떠할가. 그저 이렇게 만든 방일가? 좀 더 다른 방일가?) 그러자 성호는 문뜩 아까 자라고 하던 그 젊은 지휘관 생각이 났다. 난로에서는 옹이 튀는 소리가 이따금 나며 계속 장작이 타고 있다. 성호는 그 젊은 지휘관이 어데서 자는가 가만히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였다. 방안은 다 누워 잠들이 들었는데 그 분만이 네모난 자그마한 책상을 복판에 내놓고 털외투를 어깨에 걸친 채 등잔'불에 의지해 열심히 무엇인가 들여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성호는 처음 수직하는 분이 틀림 없구나 생각했으나 다시 보니 그 지휘관은 책상 한 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하들하들 춤을 추는 등잔'불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에 비치인 그의 넓은 이마며 철색으로 빛나는 둥그스럼한 얼굴이 아무래도 보통 지휘관 같지 않다.

(상당히 직위가 높은 지휘관임에 틀림 없다.) 성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내려 서며 잠이 든 대원들을 일일이 살피였다. 어느 대원에게 가서는 차 제낀 모포를 다시 덮어 주었고 어느 대원에게 가서는 접질리고 자는 팔을 펴 주며 편히 자

계 했다. 그 분은 성호와 동순이가 자는 자리까지 와서 가만히 굽어 보고 그리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다른 병자로 가는 것 같다. 성호는 부지중 지휘관이 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정을 느끼였다. 아직 젊은 지휘관이나 어버이 같은 큰 자애가 풍기고 있는 것을 느끼였다. 성호는 잠들고 있는 대원들이 한 없이 행복해 보였다.

얼마 후 그분은 다시 조용히 복도로 들어왔다. 역시 또 대원들 자는 것을 이리 저리 살피며 난로 앞까지 와서는 소리 없이 난로에다가 장작개비를 넣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등잔'불을 향해 책상에 마주 앉았다. 역시 아까와 같은 자세로 열심히 무엇을 들여다 보며 생각에 잠긴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밤도 주무시지 않았다. 국경 지대로 진군하신 후부터 더욱 이런 밤이 자자졌다. 조국의 독립과 미래의 조국 건설, 조국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의 위대한 전망과 계획, 일제와의 싸움, 혁명의 승리, 이것은 항상 그분의 뇌리속에서 떠나는 때가 없었다. 이 밤에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 홀로 생각에 잠기여 날을 밝히신다. 그리운 조국에로의 진군을 생각하심인가! 온 조국 우에 거세찬 혁명의 불씨를 뿌릴 계략을 모색하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당 창건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련마하고 계심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조국 건설의 미래 설계도를 작성하고 계심인가, 아니 그도 저도 아니면 눈 앞에 당장 우글거리는 일제 적들을 섬멸하는 다음 날 전투의 작전을 구미심인가, 누구도 그분의 심중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맞추어 볼 수도 상상을 해 볼 수도 없었다. 다만 그분이 깊어 가는 밀림 속의 밤에 홀로 등잔'불과 마주 앉아 밤을 새는 날이 계속될 때 동지들과 대원들은 그분의 위대한 구상이 더욱 굳어지며, 높아지며, 커진다는 것을 느끼며 승리의 신심을 한층 굳게 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김 일성 동지의 그 영명한 모습을 자는체 하며 눈익혀 바라 보면서도 성호는 끝끝내 그분이 바로 김 일성 동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홀연 단잠이 들고 말았다.

성호는 눈을 퍼뜩 떴다. 날이 활짝 밝았다. 그 지휘관은 어제 밤 들어 올 때 앉았던 그 모습 대로 난로를 향하여 걸터 앉아 있었다. 책상도 등잔도 보이지 않았다. 성호는 벌떡 일어 나 정신을 차렸다.

《몹시 고단하시지요.》

그분이 빙긋이 웃으며 성호를 바라 보았다.

《아닙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성호는 이렇게 말하며 신을 신고 복도에 내려 섰다. 김 일성 동지가 누구인지 하는 안타까움은 좀처럼 풀릴 줄 몰랐다. 그때 성호는 방안을 한번 둘러 보고 밖으로 나갔다. 저쪽 수림 속에도 병실이 한 채 보이였다. 대원들이 나와 눈들을 퍼 들여 갔다. 아마도 눈을 녹여 세수'물을 쓰는 것 같다. 문 어구에 서서 자던 방을 들여다 보니 그 젊은 분이 드나드는 대원들을 지휘한다.

(아마 이 부대에는 김 일성 장군이 안 계신가 보다.)

성호는 일종의 야릇한 심정에 사로잡히며 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이다.

젊은 지휘관은 한 전령병을 부르더니 이렇게 지시를 준다.

《동무, 한 50 메터 떨어진 옴폭한 장소를 골라 이야기 할 자리를 만드시요. 복판에는 불도 피워 놓으시요.》

얼마 후 전령병이 들어 와 준비가 다 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그분은 천천히 일어 나며,

《그럼 바깥에 나가 보십시다.》하고 앞을 선다. 키도 후리후리 크다. 성호도 큰 키인데 좀 더 큰 것 같다. 성호는 뒤로 따라 가며 대체 이분은 누구일가 이왕 김 일성 동지를 찾뵈울 바에는 이분의 직책과 성함이나 알아 둬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옆으로 따라 오는 동순의 귀에 대고 은근히 물었다.

《대체저분은 누구시요?》

동순이가 성호를 뻔히 바라보더니,

《여직 몰랐소? 바로 김 일성 동지입니다.》

《넷?》

성호는 그만 주춤하고 서 버렸다. 성호는 너무도 놀라와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 번 했다. 젊은 분은 무거운 사색에 잠긴듯 머리를 약간 아래로 숙인채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큼직큼직한 발'자국을 천천히 옮기여 앞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저분이 바로 김 일성 동지시라니!)

성호는 금시 그 젊은 분의 뒤'모습에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황홀하고도 태산 같은 거대하고도 찬연한 빛이 뿜겨지고 있는 것을 느끼였다. 성호는 어제'밤부터 여직 그것을 모르고 보통 지휘관으로 대한 것이 더욱 황송한 마음과 더불어 형언하기 어려운 야릇한 심정까지 가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언제나 항상 대원들 속에서 대원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틀림 없다. 애초부터 내가 달리 상상했던 것이 어리석었었구나! 얼마나 훌륭하신가! 성호는 새삼스럽게 머리가 수그러 들었다.

병실에서 좀 떨어진 해'빛이 내려쪼이는 오목한 곳에 몇 사람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여 있었고 그 복판에는 모닥불이 흰 연기를 몰몰 올리고 있었다.

앞서 걸으시던 김 일성 동지는 돌아 서다가 오는 성호를 바라 보며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생활에 습관이 되시지 않은 분들에게 좀 불편 하실지 모르나 여기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김 일성 동지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나무등걸을 의지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성호를 앉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성호 맞은편으로 앉으셨다.

김 일성 동지는 긴 나무 가지로 모닥불을 이리 저리 헤치며 마른 나무를 그 우에 더 놓았다. 해'빛을 시새워 검붉게 보이는 불꽃이 활활 타 올랐다.

성호는 김 일성 동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 일성 동지가 바로 이분이였구나!—성호는 몇 번이고 속으로 감탄했다. 성호는 권 백이와 조 동춘에게서 들은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이야기가 떠 올랐다.—이렇게 젊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시고 영명하시고 비범하실가. 이분은 천재이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안광과 얼굴 모습이 그것을 말하여 준다. 이분은 영걸이시다.) 성호는 김 일성 동지가 점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이였다.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는 늘 옆에서 듣는 평범하고도 다정한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였다.

《그래 동지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놈들에게 여러 차례 많은 고문을 당하셨다는데…》 성호는 그저 황송 하기만 했다. 《아주 건강합니다. 한 번도 앓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머리를 끄떡이시였다.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제일입니다. 댁에서도 다 안녕 하시겠군요.》

《네 다 무고 합니다.》 김 일성 동지는 이것 저것 자꾸 물으시였다.



《댁에는 량친께서 다 생존해 계십니까? 아이들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성호는 송구스러워 머리를 지수굿하고 대답했다.

《네, 두 분 다 계십니다. 아버지는 명천에 계시고 지금 어머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어린 것은 지금 다섯 살 난 딸애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들을 다 모시고 계시니 행복하십니다. 그럼 고향이 명천이신가요?》

《고향은 길주입니다만은 명천에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자주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길주, 명천, 좋은 데서 살으셨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도 길주, 명천 출신 동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천에 있는 칠보산이 그렇게도 경치가 좋다지요.》

김 일성 동지는 어느덧 그리운 고국을 회상하시는듯 추억을 더듬으시며 말씀을 계속했다.

《우리 조선이야 어디를 가도 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데지요, 가는 데마다 푸른 소나무가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평양 모란봉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요, 대동강도 좋고 만경대도 좋은 곳입니다. 갑산 지대도 그렇게 아름답겠지요. 삼수, 갑산! 옛날 봉건 통치 계급들은 삼수, 갑산을 귀양지로 설정하고 자기들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그 곳으로 귀양을 보냈지만 산수는 의연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 갑산 지구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어떻습니까?》

성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네, 갑산 지대도 기름진 전답이 많습니다만 대개 일본놈들과 지주들에게 독점이 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화전을 일쿠어 먹고 삽니다. 화전에서는 주로 보리와 귀밀, 감자가 나는데 왜놈들이 화전을 일쿠어 먹는 자유까지 박탈해서 소위 화전 개간 금지령이라는 것이 공포된 이후로는 화전을 일쿠는 것까지 구속을 받아 화전 마저 넉넉히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 일년 농사를 지어 일년 계량을 대는 집들이 흔치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성호는 갑산 지대 농민들의 생활 처지에 대해 상세히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일반 농민들 생활 처지가 그러한 반면 일본놈들과 지주, 부호들은 호의 호식하며 엄청나게 잘 산다는 말을 계속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긴 나무 가지로 불을 이리 저리 건드리며 성호의 말을 유심히 들으시였다.

《어디를 가나 조선 농민들의 생활 처지는 다 그럴 것입니다. 농민들이 토지에서 해방이 되지 않고서는 그 빈궁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특히 이 만주에서도 그렇지만 조선에서 농민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김 일성 동지는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시던 말을 끊으시고 손에 든 나무 가지 끝을 놀리며 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김 일성 동지는 생각을 끊으시고 나무 가지를 불 우에 던지며 상반신을 들으셨다. 그리고는 성호와 동순을 바라보시며 말씀했다.

《자, 그럼 우리 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다.》 김 일성 동지는 자리를 고쳐 앉으셨다. 성호가 긴장한 자세로 머리를 추켜 들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을 이으셨다.

《그 동안 우리는 동지들이 국내에서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꾸준하게 잘 싸워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높은 존경을 표시하는 바이며 열렬한 동지적 성원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혁명 과업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동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 동지를 한번 만나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지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성호는 자기들의 형편을 먼저 말씀드리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먼저 갑산 지구 내의 운동 정형과 자기들이 오늘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 자기들이 느낀 고충에 대하여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저희들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새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여 싸워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모두가 리론 수준이 어리고 정세를 파악하는 것도 유치하며 많은 경우 그것도 갑산 지구에 국한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조선 혁명 정세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 도리가 없고 조성되는 객관적 정세도 파악할 능력이 없다 보니 저희들의 활동이란 극히 초보적이고 어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저희들에게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오직 우리 투쟁에 있어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지들의 오래전부터 느껴 오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혁혁한 활동 정형을 수년 전부터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또 인민 혁명군의 지도 밑에 많은 정치 공작원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고 국내로 들어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과 련계를 지음으로써 인민 혁명군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볼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여직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군께서 인민 혁명군 부대를 인솔하시고 이 지대까지 나오시게 된 것을 계기로 오늘 장군님을 만나 뵈우니 저희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장군님의 직접 지도를 받아 저희들에게 맡겨지는 모든 과업을 기필코 실천하리라는 것을 목숨으로써 맹세할 그 마음만이 지금 저희들에게 충만되여 있을 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한 마디 하신 다음 무릎 우에 손을 얹고 그 손을 굽어 보시며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였다.

《좋습니다. 동지들의 그 념원은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돌아 가실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 인민 혁명군 창건에 대한 유래라든지, 제 3 국제 공산당 제 7 차 대회에서 결정된 문제라든지, 또는 조국 광복회에 대한 것, 그 10 대 강령, 또 앞으로 국내 운동과 우리가 어떻게 련계를 가질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의 방침 등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내가 좀 이야기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호는 더욱 황송해서 말이 얼른 나오지 않는다.

《네》 성호는 겨우 대답 한 마디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선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는 데로부터 담화를 시작했다. 성호는 한 마디 빼놓지 않을려고 귀를 도사리고 앉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우렁우렁 울려 퍼지는 말소리는 한 마디 한 마디 성호의 심장을 파고 들었다.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창건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하셨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과 함께 조선에 대한 파쑈적 폭압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환경에서 조선 혁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한때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만일 이런 복잡한 환경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확고히 서서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투쟁 로선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선 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명철한 로선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더욱 그렇지만 당시의 조성된 정세 하에서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의 소극적 투쟁, 평화적 파업 투쟁 형태 또는 일시적 폭동 투쟁 형태 등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러한 정세하에서는 반드시 투쟁의 적극적 형태 즉 무장 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광범한 인민적 투쟁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 형태가 무장 투쟁 형태로 전환된 것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에 립각한 혁명 정세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리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무장 투쟁의 개시로부터 유격 근거지의 창설, 조선 인민 혁명군의 창건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시였다.

다음은 제 3 국제 당 제 7 차 대회에서 론의된 문제들과 결정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 조선에서의 민족 통일 전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김 일성 동지는 여기서 조선에서의 계급적 변화에 대한 명철한 분석을 먼저 하신 후 반일 통일 전선 결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동지도 아시겠지만 조선 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입니다. 이러한 조선 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강력한 반일 통일 전선을 급속히 형성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만일 이러한 혁명 임무 수행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로동 계급과 고농, 빈농에만 의거하고 기타 각계 각층의 애국적 요소들을 도외시한다면 혁명 사업에서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반일 통일 전선의 확대 강화, 이는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조선 혁명의 특수성에 가장 옳게 적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물론 지난 시기도 민족 통일 전선 문제가 론의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맑스—레닌주의 기본 전략 전술에 확고히 립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면치 못 했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여기서 민족 통일 전선 문제를 강조하시며 조국 광복회 창립과 그 10 대 강령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호는 모든 리론적 문제, 애매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 정세에 비추어 지난 5월 조국 광복회 창립을 보았으며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광복회는 그 10 대 강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민족 반역자, 친일파,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개량주의자 등 로골적으로 일제와 결탁 한 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 인민의 반일 력량의 집결체입니

다. 우리 동무들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국 광복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앙의 여부, 직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 이 조직에 망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광복회는 국내로 더욱 깊이 침투 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었다. 전령병이 다시 와서 점심 식사를 알린다. 그는 벌써 세번째 왔다. 김 일성 동지는 그걸 모르고 있지 않았으나 말씀하기에 점심 식사도 잊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갔군요, 시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야기를 이만큼 하십시다. 래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식사를 끝낸 후는 우리 부대 동무들하고 유쾌한 시간을 같이 보내십시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을 하며 먼저 일어 섰다. 성호는 감격과 흥분으로 온 몸이 굳어지고 있었다. 성호는 걸으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 마디를 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환하게 내다보이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혁명 정세, 국제 혁명 정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런 것이 한눈에 환해지는 것 같았다. 성호는 하루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듯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성호와 동순은 난로'불 앞에 앉아 휴식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사업이 계시는지 한 동안 들어 오시지 않았다. 성호는 유연히 천정을 바라보다가 신문지로 싼 큰 봉지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에 시선이 가며 머물었다. 무엇일가? 성호는 속으로 궁금해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김 일성 동지가 들어 오셨다. 성호는 그저 그 봉지에 눈이 팔려 있었다. 김 일성 동지가 그것을 보시며 옆으로 와 앉았다. 성호가 그제야 김 일성 동지를 알아 보고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방에 처음 들어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 봉지에 시선이 갑니다.》

김 일성 동지가 웃으시며 말씀했다. 성호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언제 보시였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동순은 그제야 봉지를 바라봤다. 김 일성 동지가 설명하셨다.

《저 봉지 유래가 아주 흥미 있습니다. 저 속에는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혜산 경찰서 서장놈이 내게 보내 온 선물 과자입니다. 그놈이 저걸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써 보냈는가 하니 나더러 혜산으로 놀려 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회답에 쓰기를 서장이 먼저 여기로 놀러 오면 나도 그 곳으로 놀러 가겠다고 해서 보냈지요. 그랬더니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쾌활하게 웃으셨다. 성호는 웃으우면서도 일변 놀랐다. 저런 물건이며 편지가 어떻게 왕래되는가 하는 의문에서였다.

《자 그럼 우리 병실이나 한 번 돌아 봅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시며 친히 안내를 해주시려고 일어 섰다. 성호는 속으로 송구스러웠으나 대원들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보고싶은 호기심이 없지도 않았다.

밀림 속의 겨울 날씨는 몹시 매웠다. 그러나 바람이 없어 안온한 맛이 돈다.

김 일성 동지는 성호와 동순을 데리고 같이 걸으시며 마치 그리운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이 것 저 것 국내에 대한 것을 물으시였다. 혜산에는 일본놈이 얼마나 사는가, 혜산에서 길주까지는 얼마나 되는가, 기차를 타면 몇시간이나 가는가, 갑산 지대에는 어떤 공장들이 있는가, 광산은 어디 어디 있는가, 농민들은 보통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갑산 지대에서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갑산 지대의 정황이며 풍습 일체를 물으셨다. 성호는 아는껏 대답했다. 김 일성 동지는 자주 쾌활하게 웃으셨다. 병실은 모두 형식이 비슷했다. 오후 시간은 다 학습 시간인듯 대원들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었다. 좌우 벽에는 배낭과 번들번들 윤이 나는 무기들이 정연하게 세워 있었다.

《지금은 모두 학습 중입니다. 돌아 갔다가 이따 오락 시간에 다시 나옵시다.》

김 일성 동지는 오던 길에 들어 섰다. 조금 걸어 오는데 저 쪽에서 한 대원이 마주 오더니 김 일성 동지에게 경례를 붙이고 보고를 했다.

《사장 동지, 저의 분대 3호 동무가 병이 났습니다.》

3호라는 것은 대원들 이름 대신 부르는 번호였다.

《언제부터 앓소?》

《오늘 아침부터 앓습니다.》

대원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좋소. 가 봅시다.》

김 일성 동지는 대원을 앞세우고 걷기 시작했다. 성호와 동순이도 뒤로 따라 갔다.

그 병실은 유난히 멀어서 골짜기 하나를 지나고 등성이 하나를 넘어서 있었다. 김 일성 동지가 병실로 들어 갔다.

《어디가 아프시요?》

김 일성 동지는 누워 있는 대원을 굽어 보시며 물었다. 누워 있는 대원이 무어라고 대답했다. 김 일성 동지는 앓는 대원의 머리를 짚어 보고 가슴을 만져 보고 손을 주물러 보셨다. 한참 후 김 일성 동지는 일어 서며 안내하던 대원에게— 감기인듯 하니 약을 타다가 먹이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돌아 섰다. 김 일성 동지는 병실을 나오셔서도 환자 대원을 생각하심인지 한동안 말이 없이 걸으셨다. 대원들에 대한 어버이 같은 크낙한 사랑! 성호는 어제'밤 잠을 안 주무시며 대원들의 이불을 덮어 주고 팔을 펴주시던 그 정경까지 회상되여 더욱 가슴이 뜨거워졌다. 본부 병실 가까이 오는데 별안간 왁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급히 내려가 보니 한 30여명 되는 인민들이 식량을 한짐씩 가득가득 지고 올라 왔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대원들과 부락 이야기를 하며 또 자기 부락에서 입대한 대원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는 중이였다.

김 일성 동지가 나타나자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를 둘러 싸고 모여 들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시고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자신도 그들 속에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야기는 오래 동안 계속했다.

김 일성 동지는 한 지휘관에게 이분들을 위해 공연을 조직해 보여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성호는 그 덕분에 조선 인민 혁명군 연예대의 흥겨웁고도 감격적인 공연을 처음 구경하였다. 성호는 정말 감격했다. 성호는 공연을 본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 했다.

김 일성 동지의 담화는 다음 날에 다시 계속되였다. 이 날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언급하셨다.

사흘째 되던 날 김 일성 동지는 앞으로 조선 혁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하시며 특히 무장 투쟁의 의의와 이를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우리 나라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도하고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강도배들에 대하여 무장한 인민들의 철저한 타격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 투쟁이 절대로 요구되며 그러니만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반드시 무장 력량의 부단한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김 일성 동지는 일제가 통치하는 전 지역의 인민 대중 속에 비합법적인 혁명 단체를 광범히 조직하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 력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무장 력량은 이 광범한 비합법 조직을 통해서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무장 투쟁을 국내 깊이까지 침투시켜 조직 전개 한다면 더 큰 승리를 더 빨리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은 젊은 혈기로 충만되여 있는 성호의 피를 더욱 끓게 하였다.

나흘째 되던 날 김 일성 동지는 성호에게 돌아 갈 것을 승인하시며 정식으로 지시를 주시였다. 그것은 첫째 국내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문제, 둘째 조선 인민 혁명군을 적극 원조하고 이의 부단한 강화를 위한 제반 과업들을 실천하는 문제 등이였다. 그러면서 김 일성 동지는 성호를 위하여 일체 비밀 공작 조례와 혁명적 사회 단체 조직 조례, 비밀 련락 조례 등 세심한 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였다. 이 지시에 의하면 각종 반일 비밀 단체 조직은 하향(下向)조직으로 할 것이 강조되여 있었고 부대와의 련락 장소는 장백에는 리 동순 집이 지정되고 국내는 성호의 제의에 의해 오풍동 김 시욱 집으로 결정하였으며 비밀 통신원은 동순의 집에서는 이미 배치되여 있는 아동단원으로 하고 김 시욱 집에서는 반일 소년 회원인 허 만 동무로 결정하였다.

성호는 나흘 동안 김 일성 동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식사와 잠'자리를 늘 같이 했으며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김 일성 동지에게 막상 작별을 하는 인사를 하려니 너무도 섭섭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성호는 이미 전투적인 혁명 임무를 받지 않았는가, 무엇을 더 주저 한단 말인가? 빨리 가야 한다. 동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용기를 내여 작별 인사를 하였다. 김 일성 동지 역시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으나 얼굴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 하였다.

《전투를 빕니다. 국내 동지들께 안부를 전해 주십시요!》

성호는 그만 눈 시울이 후끈해 얼른 머리를 돌려 버렸다. 언덕 우에는 그 사이 친한 여러대원들이 모두 나와 손을들어 흔들며 《안녕히 가십시오 또 만납시다.》하고 소리를 질렀다. 성호와 동순은 좀처럼 멎을 줄을 모르는 그들의 환송 소리를 뒤로 들으며 두 대원에게 안내되여 숲 속을 헤치고 걸었다. 성호는 그저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동시에 산이라도 가르고 나갈 것 같은 기운이 불끈불끈 치솟았다.



적들의 종심을 뚫고

최 인 덕

안도현을 비롯한 돈화현과 화전현 일대에서 달포에 걸쳐 인민들과 련계를 강화하면서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 정비하고 계시던 김 일성 동지는 1941년 여름 어느 날 우리들에게 행군 준비를 철저히 갖추라고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것은 국경 지대와 국내에 정치 공작원들과 군사 정찰 소조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닥쳐 올 대사변을 맞기 위한 준비를 원만히 갖추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에 김 일성 동지께서는 류경수 동무를 중대장으로 한 중대 성원들과 기관총반 성원들, 그리고 호위 인원들을 인솔하시고 안도현을 떠나 왕청현 림시 근거지를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행군은 처음부터 전례 없이 간고했다.

놈들이 산지대에 주의를 집중하여 요소 마다에 일만 군경 놈들을 집중 배치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적들의 포위 속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이러한 적의 전술을 간파하신 김 일성 동지는 대담한 전술로 적의 종심을 뚫고 연길 시가지를 불과 지척에 둔 로두구 근방을 대담하게 통과하기로 결심을 채택하셨다.

연길은 간도성(間島省) 소재지로서 놈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 지대였다.

이곳에는 왜놈들의 헌병대가 주둔하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일본 수비대를 비롯하여 수 많은 일본 군경들이 배치되여 있었다.

연길현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명월구에는 소위 《특설 부대》가 주둔하여 있었고, 조양천과 동불사, 룡정등 주변 성시마다에는 헌병대와 경찰서 외에 일만 군경들을 배치하여 놓고 놈들은 소위 《치안》의 만전을 기한다고 떠들고 있었다.

게다가 놈들은 소위 오족 협화(五族協和)라는 간판 밑에 협화회를 조작하여 연길 뿐만 아니라 동만, 나아가서는 만주 전역에 자기들의 특무 놈들을 물샐 틈 없이 배치하고 있었다.

적들의 이러한 살기 띤 경비망을 뚫으면서 우리들은 안도현을 떠나 은밀히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일본 군복으로 변장하고 밤낮으로 행군했었다. 성시나 대통로를 빼젓이 행군할 때면 되도록 태연하려고 애를 썼으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연길 시가가 가까와 옴에 따라 우리들의 긴장은 더하여 갔다.

연길과 로두구 사이만 무사히 뚫고 나가면 산'줄기를 타고 수림 속으로 빠져 들어 가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

밤은 깊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일본 장교복을 입으시고 행군 대렬 선두에서 대원들을 이끌고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를 끝마치고 돌아 올 때면 항상 대렬 맨 뒤에서 걸으셨지만 적정이 위험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대렬 선두에 서시군 하여 항상 우리들에게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 주시였다.

우리들은 날이 밝기 전에 연길과 로두구 간을 통과하려고 이를 악물고 행군을 다그쳤지만 연길—로두구 간 대통로와 철로를 미처 통과하기 전에 그만 날이 밝고 말았다.

동남 간으로 우뚝 솟은 산마루가 서서히 드러 나기 시작하고 뒤미처 로두구 시가지의 륜곽이 확연히 바라보였다.

여름 밤은 본시 짧기도 하지만, 새는 것도 역시 빨랐다.

벌써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로 혹은 대통로로 흩어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더 행군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였다.

나는 유격대에 입대한 초기부터 김 일성 동지를 모시고 싸워 오는 행정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험한 고비를 넘겨오긴 했었지만 이 때처럼 당황해 본 적은 일찌기 없었다.

강 저쪽을 건너다 보니 나무 한 구루 보이지 않는 산'기슭에 몇 채의 농가가 눈에 띄였다.

그리고 바로 대통로 곁에 두서너 호 되는 중국인 가옥이 보일 뿐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침착하게 정황을 살피시자 어두울 때까지 휴식하다가 다시 행군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그이의 말씀을 듣고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 보아도 은폐하여 휴식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않는 온통 발가숭이 산이였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은폐하여 휴식하자면 대통로에서 떨어진 강 건너 산'기슭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였다.

그런데 뜻 밖에도 김 일성 동지는 대통로 곁에 있는 중국인 민가들 중에서도 큰길 쪽으로 딱 마주 앉아 있는 농가로 들어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그만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사령관 동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얼른 이렇게 물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집으로 들어 가야 하오》.

김 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잔 밑이 더 어두운 법이니 적이 바로 코 앞에 있는 때일수록 더욱 대담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과연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은 김 일성 동지와 함께 중국인 농가로 찾아 들어 갔었다.

그이께서는 중국인 농가에 들어 가시자 집 주인을 찾아 사실 대로 정체를 밝히시고는 우리들이 어두울 때까지 휴식할



터인데 휴식하는 동안에 일체 바깥 출입을 금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50 여 세에 난 중국 농민은 우리들을 불안스런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요구 대로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우리들은 감시 조직을 철저히 했다. 두 동무를 농민으로 가장시켜 채소밭에 나가 김을 매면서 바깥 동정을 살피게 한 다음 집안에서도 캉 (중국식 온돌)에 앉아 창 넘어로 대통로 쪽을 내다 보면서 주위를 살피게 하였다.

날이 활짝 밝자 대통로는 번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따금씩 왜놈 군경들을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쿠면서 지나 가는가 하면 수상해 보이는 놈들이 사방을 흘금흘금 바라보며 지나 가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련일 강행군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매우 피곤을 느끼고 있였지만 누구도 캉에 드러 누울 념은 못 내고 극도로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저마다 사위를 살피고 있었다.

대통로 우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그치지 않았다. 우마차가 덜커덕거리면서 굴러 가는가 하면 이따금씩 순사 놈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 가기도 하였다.

까딱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긴장해 있으려니 긴긴 여름 해는 견딜 수 없이 지루하였다.

긴장해서 앉아 있는 우리를 보시자 김 일성 동지는 감시원들만 남겨 놓고 일제히 캉에 드러누으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놈들이 밖에서 들여다 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한편 먼저 휴식한 동무들을 내여 보내여 채소밭에서 감시하던 대원들을 교대해 주게 하신 다음 경각성을 더욱 높이라고 거듭 주의를 주셨다.

그럭저럭하여 점심 때가 되였다.

나는 다른 동무와 함께 캉에 앉아 계속 바깥 동정을 살피면서 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다시 창'가로 다가 갔을 때 였다.

나는 창 밖에서 그 어떤 검은 그림자들이 얼른거리는 것을 퍼뜩 보았다. 그래서 책 얼굴을 돌리고 밖을 내다 보니 전투 모자에 누르스름한 양복을 입은 4~5 명의 낯선 사람들이 살기 띤 눈으로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 보면서 마당으로 들어 서는 것이였다.

그 순간 나의 가슴은 쌍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다.

뒤에야 알았지만 놈들은 중국인 농가의 뒤에 있는 철'둑 밑을 빠져 담모퉁이를 돌아 나왔기 때문에 채소밭에서는 그 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태는 매우 위급하게 되였다.

나는 급히 김 일성 동지께 정황을 보고한 다음 총을 단단히 틀어 잡고 출입문 뒤에 등을 대고 바싹 달라붙었다.

이어 와짝하고 출입문이 열리더니 전투 모자가 방안으로 쑥 들어 왔다.

실로 숨 막히는 순간이였다.

나는 김 일성 동지께서 싸창을 꺼내여 당장 놈들을 멸살시키리라고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뜻 밖에도 김 일성 동지께서는 벽에 기대여 앉으셨다가 번쩍 상반신을 일으키시더니 찌릉찌릉 울리는 목소리로 《다레까!?(누구냐!?)》하시며 놈들을 무섭게 노려 보셨다.

그러자 맨 앞에 섰던 놈은 대번에 기가 폭 꺾이여 방안을 살필 경황도 없이 련방 《하, 하 (네, 네)》하며 허리를 굽신거리였다.



놈들은 김 일성 동지를 틀림 없는 일본 장교로만 알았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께서 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리시자 놈들은 연신 굽신거리면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복도 (캉과 캉사이에는 복도가 있다.)에 들어 섰다.

놈들이 전부 복도에 들어 서자 마자 우리들은 날쌔게 총'부리를 들이 대면서 와락 달려 들었다.

《아니, 이게 웬 일이십니까? 저희들은 김 일성 공산군이 출몰했다는 정보를 듣구 나오던 길인데 그만 잘못 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요…》

놈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싹싹 비비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놈들의 몸을 수색하여 무기들을 압수한 다음 포승으로 꽁꽁 묶었다.

놈들은 특무 기관에서 파견한 조선인 밀정 놈들이였다.

《네 놈들이 찾는 공산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 동지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자 너무도 뜻 밖의 일이라 놈들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다.

《네놈들두 조선 사람이라면 생각들 해 봐라! 무엇 때문에 왜놈 앞에서 개질을 하는가!? 왜놈들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동족을 팔아 먹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네 놈들보다 더 흉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이 세상에 또 어데 있단 말인가!?.》

그이는 추상 같이 꾸짖으셨다. 놈들은 그만 사색이 되여 떨기만 하였다.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네 놈들을 당장 죽여 버리고 싶지만 총알이 아까와서 죽이지는 않겠다만 우리가 떠날 때까지 헛간에 들어 가서 꼼짝 말고 있다가 돌아들 가라!》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명령대로 다섯 명의 특무 놈들을 헛간에 가두어 놓은 다음 감시 조직을 더욱 세밀히 했다.

놈들은 우리를 잡으려다가 결국 도로 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들은 행장을 갖추고 또 다시 대통로에 나서서 뻐젓하게 적들의 종심을 뚫으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대통로는 밤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인민들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군경 놈들이 총을 메고 줄을 지어 마주 행군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태연히 놈들과 스쳐 지나면서 로두구 시가지를 빠져 유유히 살림 지대로 접근해 갈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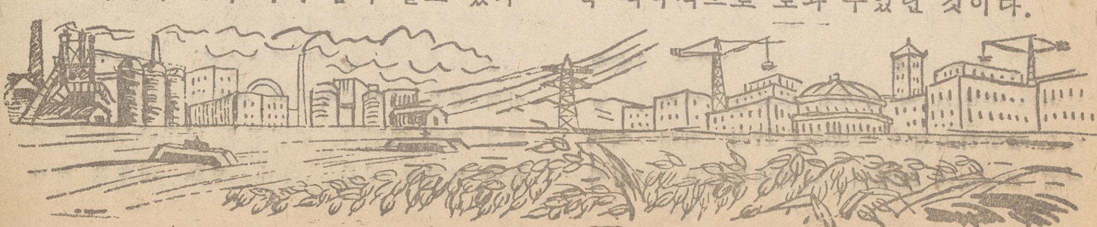
며칠 뒤에 우리들은 김 일성 동지를 모시고 목적지인 왕청현 림시 근거지에 도착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왕청현 림시 근거지에 도착하시자 또다시 소부대 활동을 지휘하시기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나는 적들의 종심을 뚫고 나온 대담한 행군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와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느꼈다.

왕청현 림시 근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김 일성 부대》가 백주에 로두구 시가지를 통과했다는 소문이 많은 인민들 속에 널리 퍼져 들어 간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일제 놈들은 이 소문이 더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쓰면서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놈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소문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은 인민들은 소부대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던 것이다.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하오》

주 성 일

지난 날에는 흥남 지구의 공장들에 부속품이나 깎아 주던 우리 룡성 기계 공장이 오늘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기계라도 척척 만들어 내는 우리 나라의 어머니 공장으로 발전되였다.

나는 웅장한 8 메터 타닝반이며 바위 같은 쇠'덩이를 쿵쿵 찍어 내는 3천 톤 프레스며 그리고 4,000 마력 고압 가스 압축기를 볼 때마다 이 대형 기계들을 만들게끔 우리들에게 혁명적 대담성과 완강한 투지를 길러 주신 수상님을 가슴 뜨겁게 생각하군 한다.

수상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공장에 나오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였고 우리를 고무 격려해 주시였다.

1957년 3월에 우리 공장을 찾아 오신 수상님은 공장 안을 일일이 돌아 보신 다음 공장의 발전 전망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기술적 장비를 갖추는 데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에서 모범이 되여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후 2 년간 우리 공장은 국가로부터 많은 공작 기계를 받았으며 종업원들도 늘어서 지난 날의 초라하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게 일신되였다.

1959년 초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한결 같이 궐기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고리를 잡지 못하여 큰 변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수상님은 또다시 우리 공장에 찾아 오시였다.

1959년 3월 24일, 이날 아침 일찍 공장에 도착 하신 수상님은 여러 직장을 돌아 보신 후 우리 조기 직장에 들리시였다.

문 어귀에는 김 책 제철소에 가공하여 보낼 집채 같은 다이젱왓샤와 용광로 배풍기의 본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깎자고 애만 쓰다가 도로 내놓은 것이였다.

수상님은 지배인 동무를 뒤돌아 보시며 물으시였다.

《이건 어디서 가공하오?》.

《이것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깎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광산 기계 공장에 있는 6 메터 타닝반의 도움을 받자고 합니다…》.

지배인 동무는 계속하여 5~6 메터의 타닝반을 국가에서 한 대 받았으면 하는 심정을 수상님께 솔직히 말씀 드리였다.

수상님은 두 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3 메터 타닝반의 후면을 살펴 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7~8 메터쯤 되는 타닝반을 우리 손으로 만들수 없겠소?》 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배인 동무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수상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작업반 동무들의 얼굴색도 모두 신중해졌다.

사실 우리 공장에는 7~8 메터 짜리 대형 타닝반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외국에서 수입해 올 생각은 했어도 우리 힘으로 대담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은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었다.

수상님은 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채광창에서 비쳐 드는 아침 해'살을 받으시며 우리 선반공들 앞으로 다가오시였다.

수상님은 선반공들의 일'손을 살펴 보시였고 살림 형편도 물으시였다. 또한 깎고 있는 제품들의 사용처도 물어 보시고 나어린 견습공들 곁에 가셔서는 《일이 힘들지 않소?》 라고 다정히 말씀하셨다.

수상님은 나의 기대 앞에로 오셨다.

나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드렸다.

수상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였으나 나는 기름이 묻은 험한 손으로 수상님 앞에 손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머뭇거렸다.

그때 지배인 동무가 수상님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였다.

《이 동무가 강력 절삭 바이트를 창안하여 4배의 작업 능률을 내고 있는 주 성일 동무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궐기한 작업반입니다》.

수상님은

《천리마! 참 좋소! 이런 동무들이 우리 로동당의 참다운 아들이고 공산주의자요!…》 하시며 나의 어깨를 여러 번 두드려 주시는 것이였다.

수상님으로부터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받은 나는 눈'시울이 확 뜨거워짐을 느끼였다.

그 때 나는 황해 제철소에 보낼 1,500 마력 감속기 축 12 톤 짜리를 깎고 있었다.

수상님은 강력 절삭 바이트 끝에서 두터이 1 미리, 폭 25 미리의 절삭밥이 말리워 떨어지는 것을 유심히 보시다가 물으시였다.

《이렇게 많이 먹여도 제품의 질에 관계 없소? 기계에도 무리가 안 가고…》.

《네…》 하고 나는 절삭밥을 한 줌 쥐여 수상님에게 보여 드리였다.

수상님은 절삭밥을 들고 있는 나의 손을 밑으로 받쳐 잡으시며

《참 좋소! 아주 훌륭하오!》 하시더니 수원들을 돌아 보시며 계속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였다.

《… 계속 혁신을 일으켜 인민 경제 각 부분에 더많은 기계를 보내야 하겠소!》 하시며 수상님은 다시금 손을 나의 앞에 내미시였다. 나는 이 번에도 기름이 묻은 내 손을 내려다 보며 어쩔 줄을 몰라 주저했다.

수상님은 내 기름 묻은 손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덥석 잡아 주시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라고 거듭 당부하시는 것이였다.

나는 벅찬 감격을 안고 가슴 깊이 맹세하였다.

(수상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3 메터 타닝반 정면에 이르신 수상님은 명판이며 아무를 유심히 눈여겨 보시며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얼굴로 타닝반의 주변을 그냥 돌아 보시는 것이였다.

지배인 동무가 옆에서 이 3 메터 타닝반은 아주 정밀하다고 수상님에게 말씀 드렸다.

지배인 동무의 설명을 듣고 나신 수상님은 우리들을 돌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지배인 동무! 우리 손으로 7~8 메터 타닝반을 대담하게 만들어 봅시다……》.

수상님은 우렁우렁하고 확신성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번에 주을 아마 공장에 가 보니까 다 낡은 선반으로 재 공작 기계를 만들었던데 별거 아니요!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하오!

어떻소? 지배인 동무! 여기서도 할 수 있겠소?》.

수상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흥분하였다.

《해보겠습니다. 수상 동지!》.

지배인 동무가 힘 있게 대답하였다.

《좋소! 꼭 만듭시다!

대담하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수상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배인 동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는 것이였다.

나는 지금도 가슴 뜨겁게 회상하지만 그 때 벌써 수상님은 주을 아마 공장에서 일어난 한 점의 불꽃을 보시고 전국에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개하실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 오셨던 것이다.

당시 수상님은 함경북도에 대한 장기간의 현지 지도를 끝내시고 돌아 오시는 길이였는데 피로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에 오셔서 이처럼 불을 지펴 주시였던 것이다.

비록 우리는 수상님에게 직접 말씀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모두 한 사람 같이 그이 앞에서 마음 속으로 7~8 메터 타닝반 제작에 대담하게 달라붙을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하였다.

수상님은 박판 압연기 스탠드를 조립하고 있는 기대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 곳에서는 높이 4 메터, 넓이 3.5 메터, 중량이 30 톤에 달하는 압연기 스탠드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황해 제철소 박판 직장에 보내 줄 것이였다.

그 때 우리는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강철 생산에서 중요하게 걸린 박판 압연기를 기어이 만들어 내자고 궐기한 끝에 단능 종합 설비를 창안해서 육중한 소재를 깎아 조립하는 데 달라붙고 있었다.

수상님이 오셨을 때는 26 대의 압연기 중에서 1 대의 조립이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수상님을 맞이한 기쁨에 더욱 신'바람이 난 조립공들은 높이 4 메터의 압연기 스탠드 우에서 조립 작업을 다그쳤다.

그 광경을 보신 수상님은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대단히 수고하오.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여기서도 또 하나 마사졌구만! 우리가 중앙에서 토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동무들은 벌써 이 압연기를 만들어 냈소! 장하오!》.

수상님은 더욱 힘 있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룡성 기계 공장은 기계를 낳는 어머니 공장이오! 어머니 공장!》.

수상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압연기의 설비를 깎고 있는 직장을 보여 달라고 하시였다.

그 직장에서는 소형 쎄빠, 보링그, 빠찌깔 등 여러 대의 기대가 한데 붙어서 1,500 마력 감속기의 벳트를 동시에 절삭하고 있었다.

《이건 바로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 먹는 격이로군…!》

수상님은 선반공들을 둘러 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은 더 큰 기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구만. 앞으로 분괴압연기를 만들 수 있겠소?》.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압연기 스탠드 우에서 일하던 선반공들이 일제히 힘 있게 대답하였다.

수상님은 앞으로 단능 설비를 더 만들어서 공장을 확장하라고 강조하시였다.

그 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수상님의 모습이 눈 앞에 선히 나타나면서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하오!》라고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서 그냥 울리는 것이였다.

생각할수록 낯에 수상님 앞에서 8 메터 타닝반을 만들겠다고 선뜻 대답해 드리지 못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자그마한 아마 공장에서 다 낡은 구식 선반기를 가지고 새 공작 기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좋은 설비를 가진 우리 공장에서 왜 대형 공작 기계를 만들 수 없단 말인가!

항일 빨찌산들은 빈 주먹으로 연길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왜놈들을 쳐부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8 메터 타닝반을 못 만든다면 전문적인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상님의 말씀대로 꼭 만들고야 말테다!

나는 몇 번이고 결심을 다졌다.

우리 작업반 동무들도 모두 동일한 심정이였다.

수상님이 우리의 힘을 믿어 주시고 그토록 커다란 과업을 주시였는데 우리가 못해 낸다면 천리마 시대의 로동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며칠 후 공장 구락부에서는 종업원 궐기 대회가 열리였다.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어 8 메터 타닝반을 기어이 만들자는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우리 기대공들은 한결 같이 토론하였다.

《…소재만 주시오, 어떤 소재라도 우리는 가공해 내겠소, 소재만 넘겨 주시오!》.

주물 직장 동무들의 열의도 대단하였다.

《설계만 주시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소재라도 우리 주물 직장에서 부어내겠소. 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대담하게 붓겠소!》.

《설계는 우리가 맡겠소!…》. 연단에 뛰여올라 이렇게 웨치는 것은 설계부 동무가 아니라 공무 동력 직장의 로동자 동무였다.

물론 설계부 동무들도 열렬하게 토론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로 뭉친 우리는 태산도 떠 옮길 기세로 떨쳐 나섰다.

우리는 온근 한 달 이상이나 집에 들어 가지 않고 기대 곁에서 조금씩 눈을 붙이고는 일'손을 다그쳤다. 그래도 아무런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8 메터 타닝반은 수상님의 대담하신 발기에 의하여 그 해 8.15까지 5 개월 남짓한 사이에 완성되였던 것이다.

수상님은 우리의 이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친히 축하문과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수상님은 축하문에서 8 메터 타닝반을 완성한 우리들이 다음 해(1960년)에 점령해야 할 고지는 3천 톤 프레스라고 교시하시였다.

수상님의 축하문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더 큰 대담성과 지혜의 날개를 돋쳐 주었다.

우리는 수상님의 새로운 교시를 받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3천 톤 프레스도 성과적으로 제작하여 수상님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수상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한다면 무엇이나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들은 대담성과 자신심을 가지고 3천 톤 프레스 제작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3천 톤 프레스 제작에 있어서도 애로와 난관은 많았다.

길이 6 메터에 10 톤의 중량물 밖에 깎을 수 없는 선반기에서 우리는 길이 12 메터에 30 톤의 중량물까지도 이악하게 들어 붙어 깎아 냈지만 30 톤급의 기중기로 75 톤에 달하는 프레스 가름'대를 들어 옮기고 또 그것을 가공하기란 참말 난관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나는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님께서 직접적인 고무와 격려를 받은 일을 생각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군하였다.

수상님은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룡성 기계 공장 동무들이 8 메터 타닝반과 기타 대형 기계들을 제작하는 데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으며 그 기세로 3천 톤 프레스도 반드시 성과적으로 제작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던 것이다.

그리고 수상님은 2 중 천리마 작업반장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대회의 휴식 시간에도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3천 톤 프레스는 얼마나 되여 가오?……》라고 물으시면서 얼마전에 있은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프레스확할 데 대한 것을 결정했는데 3천 톤 프레스를 결의한 대로 9월 말까지 완성함으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였다.

《…지난 해에 동무들이 만들어 놓은 8 메터 타닝반을 꼭 한 번 보러 가겠소!…》.

수상님이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돌아온 나는 수상님의 말씀을 우리 작업반원들과 전체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수상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전체 동무들은 기세 충천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천 톤 프레스를 9월 말까지 해내겠다고 더욱 힘차게 궐기해 나섰다.

우리는 거듭되는 토의 끝에 도저히 들어 올릴수 없다던 75 톤의 프레스 가름'대를 30 톤급 기중기로써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나는 그때 바위 같은 가름'대가 공중에 둥둥 떠올라 가고 그것이 8 메터 타닝반에서 가공되여 나갈 때 그힘은 바로 수상님이 주신 것임을 재삼 가슴뜨겁게 느꼈다.

수상님은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가 끝난 지 며칠 안 되는 1960년 8월 28일에 또 우리 공장을 찾아 주시였다. 그 때 수상님은 비날론 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나서 우리를 고무하려고 또 찾아 주신 것이였다.

수상님은 이 날 처음으로 8 메터 타닝반을 돌아 보시였다.

수상님은 8 메터 타닝반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크게 말씀하시였다.

《훌륭하오! 듣기보다 더 크구만!…》.

수상님은 육중한 소재를 업고 돌아 가는 8 메터 타닝반의 명판을 따라 걸으시면서 거듭 거듭 우리를 치하해 주시는 것이였다.

수상님은 8 메터 타닝반과 함께 가공 중에 있는 3천 톤 프레스도 돌아보시면서

《동무들 어떻소! 하면 되거든!…》하시며 단능 설비를 더 갖추어서 9월 말까지 꼭 3천 톤 프레스 제작을 완수하라고 가르치시였다.

이리하여 3천 톤 프레스도 수상님의 교시대로 그해 9월 말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3천 톤 프레스! 이것은 8메터 타닝반이 없이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수상님의 대담하신 구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8 메터 타닝반이 3천 톤 프레스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상님의 구상에 의하여 제작된 8 메

며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가 4천 마력 압축기를 낳았고 지금은 1만 2천 크바 화력 타빙을 자신성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때 수상님의 대담하시고 현명하신 구상이 오늘 우리 나라를 기계로 뒤덮이게 했다는 것을 나는 날이 갈 수록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된다.

1961년 4월 2일, 수상님은 또다시 우리 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은 명절 일색으로 흥성거렸다.

수상님이 타신 자동차는 꽃보라와 색테프를 가르며 공장 안에 들어 섰다.

나는 어버이를 만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 가서 수상님에게 꽃묶음을 드리였다.

수상님은 한 손으로 꽃묶음을 받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나를 꽉 그러안으시면서 친자식에게 물으시듯 말씀하시였다.

《성일이! 잘 있었어?!》.

나는 가슴이 확 뜨거워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수상님의 품에 그냥 안겨 있었다.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볼을 적시는 것이였다.

수상님은 손으로 나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나직히 물으시였다.

《건강했어?》

《네…》.

나는 목이 메여 더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수상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 공장 전체 동무들에 대한 고무와 사랑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이처럼 자애롭고 배려 깊으신 수상님을 모신 행복을 온 세계에 소리 높이 웨치고 싶었다.

수상님은 이 날 3천 톤 프레스를 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그 주위를 몇 번이고 돌아 보시는 것이였다.

《대단하군! 대단해! 일을 할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내걸고 긴장되여 일하면 못해 낼 일이 없거든! 또 사람은 이렇게 일해야 살맛이 있지!》.

수상님은 나를 뒤돌아 보시며 흥분하신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깊은 산에 가서 중 노릇이나 하지…》.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수상님은 허리를 굽히시여 3천 톤 프레스의 지하 기계실 내부까지 속속들이 살펴 보시는 것이였다.

우리 로동자들이 해 놓은 일을 어느 하나도 놓침 없이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세세히 살펴 보시는 수상님 앞에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 절로 고개를 숙이였다.

오늘까지 8 메터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를 수만 수십만 사람들이 보고 갔지만 좀처럼 눈여겨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지하 기계실까지 허리를 굽히시고 옷에 기름을 묻히시면서 살펴 보신 이는 우리 수상님 뿐이다!

그날 수상님은 지배인 동무가 땅'바닥에 이리저리 금을 그으면서 설명하는 것을 허리를 굽히고 보시면서 프레스 직장의 건설과 30톤, 10 톤급의 전기로를 설치하여 강괴를 자급자족함으로써 프레스의 설비 리용률을 높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상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들은 수상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정신차려 듣고 있었다.

수상님은 공장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둘러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젠 6천 톤 프레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소! 만들 수 있지?!》.

《수상님! 꼭 만들겠습니다》.

수상님의 대담하신 구상과 현명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승리의 신심이 생긴 우리는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수상님께서 지펴 주신 혁명적 대담성과 그 전개력의 세찬 불'길 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우리들은 6천 톤 프레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대도 만들어 낼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수상님의 발기와 구상에 의하여 현대적 대중형 기계의 어머니 공장으로 발전한 우리 공장은 황해 제철소의 2호 용광로와 2.8 비날론 공장, 그리고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의 방대한 설비 부속품을 주동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또 대수력, 화력 타빙을 비롯한 발전 설비들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국의 기계 공업의 앞장에서 계속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신 수상님의 높은 기대에 더욱 고무되여 1만 2천크바 화력 타빙 제작에 착수하였다.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에로 령도하시는 수상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우리 공장 전체 동무들은 혁명적 대담성과 천리마의 기세로 7 개년 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계속 보무 당당히 진군하고 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동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위대한 조국의 아침이 밝아 온다. 황철과 김책의 용광로들에서 내뿜는 검붉은 연기, 룡성과 희천에서 울리는 기계의 교향악, 광활한 전야로 내달리는 뜨락또르의 요란한 발동 소리, 이 모든 것에 민족적 륭성기, 일대 번영기의 패기가 넘쳐 흐른다.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 누구나 일하며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 받는 세상, 사회주의 락원에서 우리 청년들은 살고 있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나날에 장백의 밀림 속에서 구상하고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사회주의 사회가 이 땅 우에 실현되였다. 수천년의 조선 력사에서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륭성해 본적이 언제 있었으며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기쁨과 긍지로 충만된 때가 언제 있었던가! 실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영광스러운 투쟁이 있음으로써만 우리에게는 오늘의 행복이 있고 오늘의 보람찬 생활이 있다. 우리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 창건 30 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슴 뜨겁게 우리의 행복과 민족적 번영을 노래하며 가장 열렬하고 다함 없는 영예와 감사를 항일 유격대의 창건자이신 김 일성 동지에게, 항일 투사들에게 드린다.

지금으로부터 30 년 전.

김 일성 동지는 일제의 야만적 통치를 반대하여 조선 인민의 첫 무장 대오를 조직하셨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폭압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때, 조선 인민의 머리 우에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구름이 뒤덮였을 때 그이께서는 선행 시기의 민족 해방 운동이 내포한 모든 제한성과 결함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 민족해방 투쟁을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강력한 자기의 무장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는 조선 혁명의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고 조선 인민의 혁명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력사적 시대를 이룩하였다.

돌이켜 보라! 그때로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은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간고한 길을 걸어 왔던가! 항일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사면 포위 속에서 아무런 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백만 대군을 상대로 1—2 년도 아닌 15 여 성상을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싸웠다. 무기도, 탄약도, 식량도, 피복도 원쑤들과의 피어린 전투를 통하여 해결해야만 하였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수십일 씩 굶기도 하였고 때로는 끝 없는 밀림과 설령을 넘으며 수천리의 강행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곤난도 악조건도 항일 유격대원들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혁명의 근거지 처창즈의 유격대와 인민은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도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 정신밑에 원쑤들과 싸워 이겼고 굶으며 쓸어 지면서도 항일의 용사들은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백 여일의 기나긴 고난의 행군도 승리적으로 보장하였다. 지어 그들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 과업을 완수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가지고 풍구며 메, 집게와 마치로써 담배'대, 호박덩굴, 깨여진 가마와 보습, 달구지 테 등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섬멸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언제나 백전 백승하였다. 동성 격서, 신출 귀몰하면서 동만, 남만, 북만 등 만주 땅의 광활한 지역들에서 수천 수만회의 전투를 진행하였고 그때마다 원쑤들에게 무리 주검을 주었다. 일제의 물샐틈 없는 산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 보천보의 밤하늘에 희망과 신생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었고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 인민은 살아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다.

이렇듯 항일 유격대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매 전투들에서 백전 백승한 것은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 되였기 때문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무장 투쟁의 매 단계에서 항상 현재 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가장 정확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매 전투에서 림기 응변, 천변 만변의 전술로써 걸음마다 원쑤들을 치면서 유격대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정신—불요 불굴의 투지, 필승의 신념, 혁명적 락관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 대원들의 혁명 정신으로, 의지로, 기백으로 되였으며 바로 그것으로하여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항상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 혁명의 전도를 락관하면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그것은 실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로부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 되였고 그것이 있음으로하여 강도 일제의 패망과 조선 인민의 해방을 더욱 촉진시켰다.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였고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 행정에서 통일 전선과 인민 정권 사업의 경험, 인민 무력 건설의 경험들이 풍부히 축적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체계와 혁명 정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의 전통이 확립되였다. 또한 이것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 뿐만 아니라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도 거대한 공헌으로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그것은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혁명 정세는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우리의 혁명 력량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했으며 지난날 조선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의 어중이 떠중이들은 또다시 공산주의 대렬에 숨어들어 제각기《헤게 모니》쟁탈에 눈이 뒤집혔다. 바로 이와 같은 엄혹한 시기에 오직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절대적인 위신으로하여, 1930년 대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써만 이 복잡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고 당 창건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조선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준엄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나라의 혁명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시고 북반부를 최단 기간내에 튼튼한 혁명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시하셨으며 이 로선에 기초하여 불과 1 년 미만에 토지 개혁을 비롯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바로 그와 같은 빛나는 혁명 전통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조선 인민은 바위도 불타고 강물도 끓는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를 두목으로하는 16 개국의 무력 침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였다.

정전 직후 우리의 사정은 얼마나 곤난했던가. 우리에게는 복구 건설에 쓸 한 장의 벽돌, 한 그람의 철재도 변변치 못했다. 원쑤들은 우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떠벌리였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전쟁의 상처를 급속히 회복했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기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웠으며 조선 인민이 열렬히 념원하던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고 사회주의 락원이 건설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실로 오늘의 이 위대한 현실은 백두 밀림 속에서 해방된 조국 땅 우에 꽃필 사회주의 락원을 내다 보신 김 일성 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실생활에 구현된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핵심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당은 조선 혁명에 력사적인 고질로 되였던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력사적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전 당과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 사회는 신뢰와 화목의 분위기, 혁명적 열정과 로력적 열성으로 들끓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항일 유격대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은 오늘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 로선과 사업 방법으로 되였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운동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을 산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오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군중 로선과 사업 방법은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풍부화되여 날마다 시간마다 위대한 전변을 낳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그것은 위대한 오늘의 현실을 낳게 한 깊은 뿌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혁명 활동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 그리고 우리 당의 깊은 뿌리를 이루는 항일 무장 투쟁의 불멸의 업적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 로동당을 가지고 있으며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와 같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있음을 무한한 영광과 긍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로동당이 마련한 우리 민족의 대번영기에 살고 있으며 위대한 혁명의 시기, 투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혁명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항일 빨찌산들이 피로써 고수한 혁명의 붉은 기치는 오늘 우리의 진두에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간고 분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한 고지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 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다. 바로 이 시각에도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군사 파쑈도당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은 안타까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하루 속히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기아와 빈궁과 암흑의 도탄 속에서 헤매는 남반부 동포들을 우리의 손으로 해방하여야 하며 전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 과업이며 동시에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혁명 임무이다.

오늘의 로동당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간난 신고라도 무릅쓰고 항일 빨찌산들이 피로써 고수한 혁명의 붉은 기치, 공산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항일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이 통일되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그것은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열화 같은 혁명 정신을 말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를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불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말한다. 또 이는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사상을 말한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항일 유격대들은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중중첩첩한 적 포위 속에서 탄환도, 피복도, 식량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15 여 성상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 승리하였다. 그 어떤 굶주림도, 강행군도, 우세한 적들의 포위와 추격도, 원쑤들의 그 어떤 간악한 고문과 단두대도 항일 투사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유격대의 혁명 선렬들처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 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혁명가적 기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아직 많은 난관과 애로를 돌파하여야 한다. 우리는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시켜야하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하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학대와 모욕과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을 하루속히 해방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앉아서 제국주의자들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전세계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피압박 인민들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정신—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적 기풍이며 가장 철저한 혁명 정신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을 찾아서 하고 일을 만들어 하며 대담하게 사고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여 없는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정신이며 간고 분투 만난을 극복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혁명 정신이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들 혁명 전사들에게는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살수 있고 인민의 락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항일 유격대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불타는 신념을 안고 원쑤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는 혁명 선렬들의 이 고귀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앞을 가로막는 곤난과 애로는 극복 타개하면서 이악하게 당 정책을 관철하며 자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최후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어떠한 성과에도 자만 자족하지 말아야 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만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첫 고지를 점령한데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는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한층 더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의식을 더욱 높이며 온갖 부르조아 생활 인습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며 일체 안일하고 부화한 현상들을 배격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은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간고하다. 이로부터 해이성과 권태증이 생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안일하고 부화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행복할 수록 근검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간고 분투 만난을 극복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혁명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행복하면 행복할 수록 헐벗고 굶주리며 암흑의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동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전 인민이 무장하고 손에 곡괭이를 잡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일층 견지하고 7개년 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당면하게는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모든 재능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한 톤의 철, 한 메터의 천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알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고 한 채의 집이라도 더 많이 짓자.

공장과 기업소들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자!

농촌 청년들은 금년도 여섯 개 고지의 하나인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정성껏 곡식을 가꾸어 모든 협동'벌에 만풍년이 들게 하자!

바다의 용감한 청년들은 과학적 어로 체계를 확립하며 온갖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서 80만 톤 수산물 고지 점령에로 힘차게 육박하자!

인민 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하여 선진 돌격대가 되자!

전체 청년들이여!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휘황한 미래를 투쟁으로 앞당기자!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추켜들고 당과 수령이 가르키는 빛나는 앞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수령의 참된 전사

손 관 식

조국 해방 전쟁의 간고한 나날을 회상할 때마다 수령의 참된 전사 리 창수 동무를 잊을 수 없다.

리 창수 동무는 철도 들기전에 일제의 폭압과 략탈에 시달리다 못 해 부모와 함께 동북으로 건너 갔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일제와 중국인 지주의 채찍밑에서 피눈물 나는 고역 속에서 흘러 갔다.

그러다가 조국이 해방된 후 그는 여러 동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 왔다.

압록강을 건너는 창수의 가슴은 더 없이 설레였다.

그립던 조국 땅을 밟게 되는 감격도 컸지만 그보다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들 한테서 듣고 또 들어 온 김 일성 장군님을 뵈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다그치는 그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돋친 것 같았다.

《김 일성 장군님을 뵈올 수 있겠지!》.

그는 잠'결에서까지도 이 말을 입버릇 처럼 반복하군 하였다.

조선에 나와서 그와 나는 함께 인민 군대에 입대하여 내내 한 중대에서 생활하였다(나는 당시 창수가 속한 중대의 문화 부중대장이였다).

1949년 여름 드디여 우리가 그처럼 고대해 마지않던 날이 왔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우리 부대를 찾아 오셨던 것이다.

점심 시간이였다.

우리가 휴식장에 모여 있는데 승용차들이 정문으로 들어 왔다.

수상 동지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시고 차에서 내리시였다.

—수상 동지께서 오셨구나! 이 먼 우리 부대까지 찾아 오셨구나!—

첫 순간 우리는 벅찬 감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다.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수상 동지는 우리 쪽을 향하여 손을 흔드시였다.

우리는 기쁨의 환성을 올리면서 경애하는 수령께로 막 달려 갔다.

수상 동지는 맨 앞줄에 가까이 선 창수에게 마치 오래 헤여졌던 친자식을 만나신듯 그의 이름과 고향을 물으시면서 창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그리고 창수를 앞뒤로 돌려 세우면서 그의 군복 차림을 일일이 살펴 보시였다.

창수는 자기 어깨에 얹혀진 수령의 손'길을 통하여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정이 막 심장속으로 흘러 드는 것 같았다.

—아! 어버이 수령, 수령은 이름 없는 보통 전사를 이처럼 뜨겁게 돌보시는구나!—

창수는 너무도 벅찬 감격으로 하여 그저 어깨만 들먹이였다.

수령께서는 우리의 생활 형편에 대하여, 고향 소식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하여까지 일일이 물으신 후 조국의 정세와 인민 군대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였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말씀을 빠질세라 하나 하나 심장 속에 새기며 수첩에 적어 넣었였다.

마지막에 수상 동지께서 우리에게 생활상 애로는 없는가고 물으셨을 때 창수는

—수상 동지, 조국의 경제 형편이 아직 그리 넉넉하지 못 한 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풍부히 공급 받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전투 훈련에서

의 높은 성과로써 보답하렵니다— 하고 말씀 드렸다.

수상 동지는 창수의 두 손을 모아 쥐시고 기특한 생각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리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을 잘 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웃으시면서 동무는 몸이 아주 작은데 적을 잡을 수 있겠는가고 물으셨다.

창수는 힘 있게 대답하였다.

《수상 동지, 문제 없습니다. 저에게 제일 힘든 임무를 맡겨 주십시오!》

수령의 교시를 심장 깊이 간직한 군인들의 생활에서는 그 날부터 더욱 세찬 불'길이 일었다.

그 중에서도 창수의 훈련과 내무 생활에서의 노력은 각별하였다.

그는 남달리 대렬, 체육 련습에 열중하였고 총만 잡으면 낮이나 밤이나 조준 련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심장은 오직 당과 수령께 보다 더 충직하려는 일념에 불탔다.

그는 이듬해 봄 국가 판정 검열에서 전 과목에 걸쳐 우의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중대에서 뒤떨어졌던 박 병일 동무를 우수한 군인의 수준에로 이끌어 올렸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던 우리들은 또 다시 수상 동지를 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1950년 봄 수상 동지께서 재차 중대에 찾아 오셨을 때 모든 군인들은 그간 자기들이 수령께 다진 맹세 실천을 통하여 달성한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쁨에 넘쳐 가슴이 들먹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 때 창수는 중대 직일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수상 동지는 그를 곧 알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그렇게도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 사업을 령도하면서도 8 개월 전에 만난 보통 전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수령의 그 뜨거운 마음에, 그간 창수의 훈련 성과를 알려 드리려던 나는 가슴이 메여 입을 열지 못 했다.

수상 동지는 몰라 볼 만큼 역세여진 창수의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훈련을 잘하였구만 하고 몇 번이고 치하하시였다.

나는 창수가 특히 사격을 잘 했다고 수상 동지께 말씀 드렸다. 그랬더니 수상 동지는 목표를 몇 개나 맞혔는가고 창수에게 물으셨다.

《옛, 목표는 다 맞혔습니다》.

사실 자나 깨나 수상 동지의 말씀을 심장 속 깊이 간직한 창수는 훈련 기간 20 개의 목표를 하나도 헛방없이 모조리 쏘아 눕혔던 것이다.

수상 동지는 창수의 훈련 성적에 대단히 만족해 하시고 중대 무기고에 들어 가시였다.

전사들의 무기들을 보시다가 수상 동지는 창수의 총을 들고 무기를 잘 거뒀다고 치하하신 후 특히 무기는 습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중대 생활의 세심한 점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돌아 보시면서 지도해 주시였다.

수상 동지의 말씀은 매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가슴 속에 세찬 불'길을 불러 일으켰다. 전사들은 태산도 무너뜨릴 기세로 훈련을 진행하였고 중대를 강철의 붉은 집단으로 꾸려 나갔다.

원쑤 미제의 사촉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 침공한 리 승만 괴뢰군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 데 대한 군인 집회가 열렸을 때 창수는 선참으로 연단에 뛰여 올랐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을 두 번이나 뵈옵고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수상 동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과업을 달라고 한 그 맹세를 실천할 때는 왔습니다.

나는 전투의 시련 속에서 당 앞에 지닌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승리하는 날 다시 수상 동지를 뵈옵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원쑤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주자!》

창수는 부대의 저격수로서 개성 일대에서 발악하는 적을 무찌르면서 남으로 남으로 진격해 나아갔다.

아군의 진격 앞에 뿔뿔이 흩어진 적들은 부랴부랴 한강을 도하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이런 때 한강을 에돌아 적들의 길목을 지켜선 습격조에 도하하는 적을 족쳐 버리라는 새로운 전투 명령이 내렸다. 전우들과 함께 어둠을 리용하여 나루'터에 다달은 창수는 숲속에 은밀히 매복했다. 놈들이 이 행동을 알리 없었다.

이윽고 강 건너편에서 말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물체가 강 복판에 나타났다. 엿 보니 중무기를 실는 큰 배에 약 150 여 놈 가량 되는 적들이 콩나물 처럼 빼곡히 들어 앉아 건너오고 있었다. 곁에 엎드려 있던 전우가 창수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어서 쏴 치우자는 눈치였다. 그러나 창수는 다만 싱긋 웃어 보이고는 그 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는 사격을 개시하면 적을 더러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을 모두 생포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배가 강'기슭에 닿을락 말락할 때 창수는 수류탄을 추켜 들고 움쭉 일어 섰다.

《이 놈들아 .너희들은 독 안에 든 쥐다. 네 놈들의 가슴팍에는 수 백의 총뿌리가 겨눠져 있다. 살려면 손 들고 내려라!》.

매복해 있던 전우들은 여기저기서 헛 기침을 했다.

그래도 적들은 잠잠했다.

《안 내릴 테냐?》

창수의 벽력 같은 호통에 적들은 손을 들고 비실비실 강'바닥에 내려 섰다…

《총 쏘지 않고 적을 잡는 저격수》로 창수의 이름이 온 부대에 알려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로량진을 정면으로 쳐들어 가는 아군을 막아 보려고 발악하던 적들은 배후로부터 우리의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자 일부는 남쪽으로 내 빼고 일부는 방향도 가림 없이 우리 부대 지휘부가 있는 영등포 뒤'산으로 밀려 왔다.

놈들은 아무래도 죽을 바에는 뚫고 나가 보자는 심산으로 필사적으로 달려 들었다.

때마침 부대는 온통 추격전에 떨쳐 나가고



지휘부에는 인원이 많지 못 했다. 정황은 아주 긴박했다.

그 때 창수는 성난 사자처럼 적을 맞받아 달려 나아갔다. 그의 두 눈은 증오의 불'길에 타번졌다.

창수는 수류탄 벼락을 들씌워 우선 적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놈들을 하나 하나 쏘아 눕히기 시작하였다.

평시에 단련된 그의 솜씨로 하여 총탄은 그야말로 백발 백중이였다. 30 분도 못 되는 사이에 창수가 100 여 놈의 적을 쓰러눕히자 살아 남은 놈들은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영등포를 해방한 전우들이 창수를 찾아 와서 《창수가 솜씨를 보였다면서.》 하고 축하하였을 때 그는 자기 총을 품에 그러안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이 총은 수상 동지께서 친히 검열하신 총이라네…》.

충청남도 장항 해방 전투를 앞두고 창수는 화선 입당을 하였다. 그는 조선 로동당원이 되였다.

《나의 피가 마지막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겠습니다. 김 일성 장군 항일 빨찌산들이 혁명을 위해 끝까지 충실한 것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당 앞에 드리는 그의 맹세는 비록 짤막하였으나 그것은 불보다도 더 뜨겁고 강철보다도 더 굳세였다.

1950년 9월.

원북 계선에서 부산을 향하여 중대는 부대의 맨 선두에서 맹렬히 돌진했다.

그 때 창수는 분대장이였다.

적들은(주로 미군과 흑인 부대였다) 원북면 근방에서 우리의 전진을 좌절시키고 그 틈에 함안—부산으로 증원 부대들을 상륙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그런데 전투 과정에 우리 중대는 부대와 떨어져 동지산에 이르렀다. 알고 보니 적의 배후 깊이 들어 와 있었다. 부대와의 통신 련락마저 단절되였다.

숲 속에서 당 회의가 열렸다.

어떤 역경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창수는 미더운 전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부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항일 빨찌산들이 언제 유리한 조건에서만 싸웠습니까? 항일 빨찌산은

적들의 2중 3중의 포위 속에서 15 여 성상이나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식량도 탄약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후에 있게 된 조건을 리용하여 적의 후방을 습격 교란함으로써 부대의 진격을 도와야 합니다. 부대의 진격을 기다리지 말고 대담하게 적진을 뚫고 나갑시다!…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대담 무쌍한 그의 발기는 전투원들을 흥분시켰다.

그리하여 중대는 매일 낮에는 동지산에서 적정을 감시했다가 밤에는 몇 명씩 조를 짜서 사방 70리 어간에 있는 적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소멸하고 깜쪽 같이 다시 동지산으로 들어와 은페해 있군 하였다.

창수는 분대원들을 데리고 함안 학교 운동장에 쌓인 적의 군수 물자와 무기들을 불태우고 적의 전차 3 대를 까는 등 큰 공훈을 세웠다.

전투원들은 적의 무기와 탄약을 로획하여 싸웠다.

중대는 드디여 적진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적들이 원북면 계선에 20리 종심을 두고 방어진을 강화한 때여서 그를 뚫고 나아가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 예견되였다.

돌파를 앞두고 중대는 숲 속에서 잠시 휴식하였다.

무기와 장구류를 정비하고 난 창수는 전우들과 함께 번듯이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눈 앞에는 지난 봄 자기의 훈련 성과를 치하하시며 친 어버이 같이 격려하여 주시던 수령의 영상이 다시금 우련이 떠올랐다.

그는 수령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 넣은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그는 이 수첩을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며 거기에서 샘 솟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 조용히 혼자 말했다.

—수상 동지, 당신의 전사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때에 당원인 제가 정녕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수는 나를 찾아 왔다. 그는 자기 분대가 적의 참모부를 습격하고 교란 작전을 전개하여 그 곳으로 적들을 유인하는 동안 중대가 빠져 나갈 것을 제기했다.

창수는 분대원들을 데리고 적 참모부가 있는 골짜기로 내려 갔다. 그런데 참모부 바로 앞 평퍼짐한 곳에 여섯 대의 전차가 있고 그 사이에서 양키 보초 놈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됐다! 먼저 전차를 태워 버리자. 그리고 참모부에서 쓸어 나오는 놈들을 불 빛을 리용해서 모조리 쏴 눕히자!—

창수는 분대원들을 적의 참모부 주위에 매복시키고 자기는 맨 끝 전차의 배 밑으로 기여 들어 갔다.

적 보초병 놈이 다가 오고 있었다.

창수는 그 놈이 돌아 서는 순간 비호처럼 달려 들어 놈의 목을 감아 쥐였다. 그런데 그 놈은 덜미를 껴안기 힘든 놈이였다.

격투가 벌러졌다.

용감하고 민첩한 창수였지만 그것은 힘겨운 판가리 싸움이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창수는 조선 로동당원이 원쑤 한 놈과 맞붙어 그 놈을 제끼지 못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굳은 신념과 불 같은 증오심으로 그 놈의 사타구니 짬을 힘껏 걷어 찼다. 놈은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졌다. 창수는 둘러 메였던 기관단총으로 그 놈의 골통을 힘껏 후려 갈겼다.

양키 놈은 찍 소리도 못 치고 그 자리에 빼드러 졌다.

창수는 전우들과 함께 부근에 쌓여 있는 휘발유 통들을 6 대의 적 전차 밑에 날라다 놓고 불을 달았다.

불'길은 창수의 뜨거운 심장과 꺼질 줄 모르는 적개심을 상징하듯 적 전차의 몸뚱이를 불태우면서 밤 하늘에 높이 치솟았다. 예기한 것처럼 양키 참모부의 장교 놈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 나왔다.

창수와 그의 전우들은 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다. 그리고 도망치는 놈들을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모조리 들까부셔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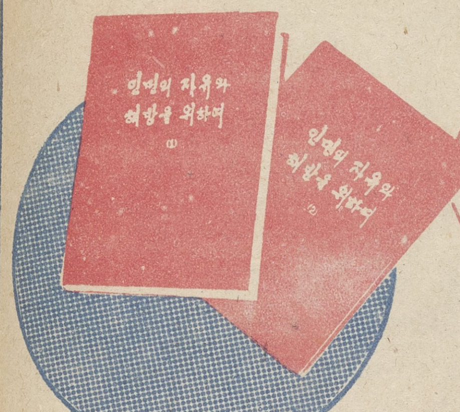
적진은 터진 벌의 둥지처럼 뒤집혔다. 혼비백산한 양키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습격당한 제 놈의 참모부에로 몰려 왔으며 적아를 가림없이 망탕 사격을 해댔다.

고지 우에서 중대는 충천하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참된 당의 전사 리 창수 동무의 또 하나의 공적을 축하하고 부대에로의 귀로에 올랐다.

이틀 후에 창수와 그의 분대원들도 무사히 부대까지 빠져 나왔다.

창수의 가슴에서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충성심은 언제나 홰'불처럼 타올랐다.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 2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이 책들에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오직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신 김 일성 원수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공산주의적 풍모, 고상한 인간성의 일면을 보여 주는 48 편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수록되여 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 집에는 대체로 1933년부터 1936년 말 조선 인민 혁명군이 장백 지구로 진출한 초시기까지의 기간에 대원들을 무한히 감동시킨 그이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2 집에는 김 일성 원수께서 장백 근거지에 진출한 이후 조국에 개선하여 해방된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한 위대한 구상을 하시는 데까지의 풍모를 보여 주는 회상 실기들이 담겨졌다.

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그이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 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책에서 김 일성 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 동지애,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성, 그리고 그이의 혁명적 전개력, 인민적 사업 작풍 등 그이의 고상한 혁명 사상과 공산주의적 품성에 대하여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에 담겨진 사상은 우리들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 추동할 것이다.

《인민들 속에서》(1, 2, 3)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이 책들에는 해방 후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 주신 김 일성 원수의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그리고 또 휘황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항상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이의 높은 덕성과 고상한 풍모를 보여 주는 40 여 편의 귀중한 회상 실기들이 수록되여 있다.

회상자—로동자, 농민, 기술자, 사무원, 가정 부인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수령의 혁명가적 사상과 덕성을 본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인민들을 친부모와 동기간처럼, 그리고 친자식처럼, 여기시는 김 일성 원수의 자애로운 풍모를 더욱 깊이 보게 될 것이며 인민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석에 걸린 문제들에도 무심치 않으시고 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있는 행복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누구나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에 찬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현명했고 정당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수령을 모신 다함 없는 긍지감을 더욱 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실로 회상 실기 《인민들 속에서》는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 실현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심을 안겨 주는 정신적 량식으로 될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의 훌륭한 공산주의 교과서로 될 것이다.



